

제 목 : 마지막 기회

천안 소망교회 가정국 김홍옥집사-하나님 말씀

2009. 11. 3 하나님 말씀

나 예수를 버리고 간 내신부들
다시 데려오길 나는 원한다.

한때는 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굳게 약속을 했건만
너무나 많은 내 신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구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구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에 버릴 수 가 없구나.
마지막 이때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내 신부들 용서해 달라고.
꼭 기회를 주고 싶구나.

오전10:00 기도 중 들린 계시말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 아들 예수에 신부들을 위해기도 했느냐.
내 가슴을 파헤쳐놓고,
내 아들 예수에 심정을 찢어 놓고
떠나버린 자들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애원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는 왜 내 아들 예수의 신부들이
나가는 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왜 섭리사 많은 자들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았느냐.

마지막 기회를 주마.
다 돌아와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전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
내 아들 예수의 간절한 애원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리라.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나의 아들 예수가 나에게 애원을 하는구나.
예수를 버리고 간자들,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는구나.
너의 선생도 애원을 하는구나.
그러니 기회를 줄 테니 모두 다 내게 데려오라.
내 앞에 회개를 시키어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리라.